

# 올 가을, 전국 미술 축제 풍성

올 가을, 세계적 규모의 예술 행사를 앞두고 미술계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먼저 3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국내 유일의 공공예술 '트리엔날레(Triennale)'인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가 안양에서 개최되는 것은 물론, 2년에 한번씩 개최되는 '비엔날레(Biennale)'가 광주와 부산에서 펼쳐질 예정이어서 미술계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고조되고 있다.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진행되는 비엔날레들이 모두 짝수해에 진행되는 특성으로 올 하반기에 몰려 있는 데다가, 공공예술 트리엔날레까지 가세하면서 올 하반기 대한민국은 미술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 개막 하는 예술 행사는 기존 전시, 회화 중심에서 설치, 영상, 퍼포먼스,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것은 물론 국내외 유명 작가들이 대거 참여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를 추진하고 있는 안양문화재단 정재철 대표는 "국내의 대표적인 미술 축제가 올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열려 뜨거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며 "특히 올해 미술계 축제는 국제적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국내외 작가들과 함께 다양한 실험 및 도전을 준비하고 있어 국제적인 미술계 행사로서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도시 전체가 지붕 없는 미술관= '안양 공공예술프로젝트'

2005년 첫 시작으로 11년간 국내 유일의 공공예술 축제로 자리매김한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 Anyang Public Art Project)가 오는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두 달간 안양예술공원과 안양 시내 일대에서 5회 짝 개최된다.

### 안양 '지붕없는 미술관' ~부산 비엔날레까지

APAP는 3년마다 개최되는 국내 유일 공공예술트리엔날레로, 지난 11년간 도시 전체에 140점의 작품을 선보여왔다. 안양의 지형, 문화, 역사 등에서 작품의 영감을 얻어 도시 곳곳에서 미술·조각·건축·영상·디자인·퍼포먼스 등의 다양한 공공예술 작품을 선보인다.

올해 열리는 APAP 5는 앞서 네 차례 진행되었던 APAP와는 달리 주제를 따로 정하지 않고, 'APAP 5' 자체를 주제로 다룬다. APAP 5의 예술 감독으로는 재미 큐레이터인 주은지씨(46)가 선임돼 국내 공공 예술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국내에서 활발히 작품 활동을 하는 20여명(팀)의 작가들이 공공조형물 설치를 비롯한 다양한 공공예술 프로그램을 선별 예정이다. 현재까지 국외 12개 팀, 국내 7개 팀, 안양 연고 작가 3팀으로 총 22개 팀이 선정됐으며 오는 9월 최종 참여자가 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이다.

해의 작가로는 안양예술공원 내 '벨컴센터'를 설계하고 있는 팀 수퍼플렉스(덴마크)를 비롯해, 가브리엘 시에라(콜롬비아), 다미안 오르테가(멕시코), 마이클 주(미국), 아드리안 비사르 로하스(아르헨티나), 안 보(덴마크) 등이 참여한다. APAP 5의 개막식은 오는 10월 15일과 16일 양일간, 안양예술공원과 평촌중앙공원에서 진행된다.

### ◇해외 유명 스타 작가 참여 '예술은 무엇을 하는가' = 광주 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는 국내 대표 비엔날레로 국내 미술계 유명 작가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오는 9월 2일부터 열리는 광주

비엔날레는 27개국에서 온 97개 팀 119명은 '제8기후대(예술은 무엇을 하는가, WHAT DOES ART DO)'라는 주제로 11월 6일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의재미술관 등지에서 영상, 설치, 평면, 퍼포먼스 등을 선보인다.

특히, 올해 참여 작가로는 2011 베니스비엔날레 스페인관 및 2010 상파울로비엔날레 참여작가 도라 가르시아, 2015 베니스비엔날레 참여작가 필립 파레노, 2003 베니스비엔날레와 2012 카셀도큐멘타 참여작가 윌리드 라드 등 스타 작가들이 명단에 포함됐다.

이와 최근 현대미술의 메카로 부상한 독일 베를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가들도 다수 참여한다. 2010 베니스건축비엔날레와 2006 베를린비엔날레 참여작가이자 독일의 대표 작가인 미하엘 보이틀러, 2015 베니스비엔날레 독일관 참여작가인 히토 슈타이얼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2013년 에르메스 미술상을 받은 정은영과 육인 콜렉티브의 멤버 이정민을 비롯해 박보나, 차재민, 이주요, 정지현, 강서경 등 국내 참가 작가들도 다양하게 참가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 ◇한중일, 아시아 미술 재조명 = 부산 비엔날레

2016 부산비엔날레는 '흔들리는 지구 다중지성의 공존장'을 주제로 9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부산시 해운대 부산시립미술관과 남구 부산문화회관, 수영구 고려재강 수영공방 등에서 전시와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프로젝트 1

전시에서는 '인, 어더 아방가르드 중국-일본-한국'(an/other avant-garde china-japan-korea)을 주제로 세 나라의 1960~80년대 자생적 실험미술이 공개될 예정이다. 김구림·이강소·하종현 등 한국작가 23명(팀)을 비롯해 중국작가 27명(팀)과 일본작가 14명(팀) 등 총 64명(팀)이 137점을 출품한다.

특히 한·중·일 큐레이터가 함께 모여 각국의 전위미술을 기획했다. 중국은 문화대혁명(1976)부터 천안문사태(1995)까지의 저항과 갈등의 시기를, 일본은 히로시마 원폭 이후부터 1980년대 말까지의 전위예술을, 한국은 단색화와 민중미술에 가려졌던 개념미술, 해프닝, 미디어아트 등의 영역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이번 전시회를 통해 동아시아 3개국의 전위예술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국제 미디어아트 전시 =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서울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레는 2000년 '미디어시티'라는 명칭으로 시작해 2년마다 열리는 국제 미디어아트 전시다. '미디어시티 서울 2016'은 9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과 남서울생활미술관, 북서울미술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등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네리리 키르루 하라라(NERIRI KIRURU HARARA)'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독특한 컨셉의 전시 주제는 일본 시인 다니카와 순타로의 시 '이십억 광년의 고독'에 나오는 상상 속 화성인의 말에서 가져왔다. 이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未來)의 언어, 또는 미지의 것으로 남아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언어를 표현하려는 '미디어시티서울' 2016의 기획 방향을 담고 있다. /뉴시스



영화 '나의 딸' 한 장면.

## 전주 디지털독립영화관 '마일스' · '나의 딸' 상영

전주영화제작소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은 8월 둘째 주 상영작으로 <마일스>와 <나의 딸>을 상영한다.

'마일스'는 재즈의 역사를 바꾼 마일스 데이비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로 그가 대중 앞에서 사라진 5년간의 이야기를 그려낸다.

돈 치틀 감독은 시나리오를 장장 10년에 걸쳐 완성했으며, 전기영화의 전형적인 틀을 벗어난 신선한 연출력으로 평단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주인공 마일스 데이비스의 역을 맡아 그의 특유한 허스키한 목소리를 완벽 재현한 데 이어, 트럼펫터 윈튼 마실리스에게 8년간 트럼펫 레슨을 받은 영화 속 연주장면을 대역 없이 소화해 관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53회 뉴욕영화제 폐막식, 제32회 선댄스영화제 및 제6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공식 초청작이다. 영화 '나의 딸'은 오래 전 마을을 떠난 크리스천이 돌아오면서 평범하다 믿었던 가족에게 감춰진 비극적 진실이 밝혀진 후 점차 파괴되어 가는 일상을 접하게 된 이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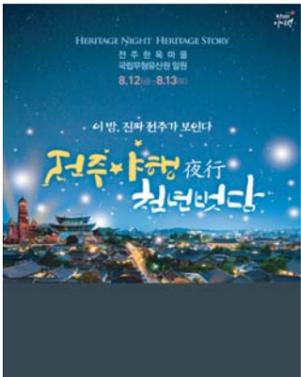
배우 출신 감독 사이몬 스톤의 첫 장편영화로 감독의 연출력과 배우들의 명연기, 탄탄한 스토리로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 초청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문의 231-3377. /정해은 기자

## 도심 생활에 지쳐있다면 잠시 한옥마을에 들러요

## 12일 '전주야행, 천년벚꽃' 선보여

태양이 작렬하고 녹진한 열기가 휘감기는 도심에서의 빠릿빠릿한 생활에 지쳐있다면, 잠시 전주 한옥마을에 들러 신선놀음에 빠지는 호사를 누리보자. 경기전, 전통성당, 전주향교, 오목대, 풍남문, 남부시장, 국립무형유산원 등에서 사드라사드라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이들 공간의 역사적 깊이와 문화유산의 가치는 물론 전주의 맥까지 읽을 수 있다. 특히 오는 12일과 9월 30일에는 <전주야행, 천년벚꽃>프로그램이 진행돼 풍류를 즐기기에 적기이다.



'전주야행, 천년벚꽃'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문화재가 집적된 지역을 거점으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재 야간문화 향유 및 체험 프로그램으로, 전주한옥마을 및 국립무형유산원 일원 21개소에서 36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오후 4~10 펼쳐진다.

태조 이성계의 위풍당당함과 마지막 황손의 서글픔이 함께 서린 <경기전>에서는 왕과 궁중의 전통 의례였던 헌다례와 야간사진촬영대회가 열린다. 야

간관람이 제한되는 국가문화재에서의 사진촬영은 특별한 기회이다.

1914년 준공된 로마네스 건축양식의 성당으로 고풍스러우면서도 신성한 분위기가 가득한(전통성당)은 신앙인들의 노래인 성음악연주회를 마련한다.

조선시대 전주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이었던 <전주향교>에서는 짧은 국악인들이 가요곡 연주, 가곡과 시조, 전주 시나위를 선보인다.

이성계가 승전을 자축하며 건축한 <오목대>에서는 전주의 문화재를 소재로 한 문학작품 속에 나타난 이야기를 발췌하여 낭송하는 문학의 향연이 열린다.

한옥마을 바로 옆 전주의 가장 크고 오래된 전통시장인 <남부시장>에서는 미로처럼 형성된 남부시장 골목골목에 숨겨진 미스터리를 풀어가며 태조 어진이 숨겨진 공간을 추리하는 왕의 초

상을 지켜라 탈출게임이 진행된다.

무형문화의 숨결을 만드는 근원지인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전통연희인 줄타기와 비나놀이, 강강술래를 비롯해 그림자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린다. 동물의 사육제와 피터와 늑대 등 클래식 음악과 그림자극의 조화를 즐길 수 있다.

또한 경기전 정문, 한옥마을 쉼터와 전통문화연수원 등 거리 곳곳에서 국악 버스킹 페스티벌이 펼쳐져 야행의 즐거움을 배가 시킬 예정이다. 이외에도 강양사예관, 교통아트미술관, 전주원판본문화관, 최명희문화관, 여명카메라박물관, 전주소리문화관, 부채문화관, 전주전통문화관 등에서는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야행추진단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275-6945. /정해은 기자

##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부수자... '맨박스'

"남자는 울면 안 돼!" 세상에 나온 지 4~5년밖에 안 된 어린 남아아이에게도 익숙할 이 한마디에는 많은 사회적 통념이 담겨 있다. 남자는 강해야 하고, 약한 것들을 지켜야 하며, 사람들 앞에서 드러낼 수 있는 감정은 오직 분노뿐이다.

하지만 그 강요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명쾌한 답을 내놓을 수 있는 남자는 많지 않다. '보호'를 받는 '나약한 존재'로서의 여성이 그로 인해 행복해졌는지 또한 의문이다. 남자도 여자도 행복해지지 않았다. 혹시 태어나는 순간부터 강요받아 온 '남자다움'에 대한 강박이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비교적 열린 성의식을 가진 미국에서조차 남성에 대한 성(性) 역할은 여성의 그것과는 다른 의미로 보다 폭넓게 강요됐다. 이 책의 단초가 된 TED 강연 'A Call To Men' (남자들에게 고함)이 미국 현지에서도 이토록 화제가 됐으니 말이다.

강연자이자 이 책의 저자인 토니 포터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남자다움'을 의심한다. 그는 남자를 둘러싼 고정관념의 틀을 '맨박스'(man box)로 규정하고 이를 깨부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모든 남성이 남들보다 우월하지 않아도 괜찮고, 느낌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하며, 그냥 친구로만 지내는 이성이 있어도 괜찮다고 말한다. 그는 '남자로서 가질 수 있는 훌륭한 자산'은 자기희생 남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돌아봐야 한다고 역설한다. 김영진 옮김, 200쪽, 1만4000원, 한빛비즈 /김민근 기자

## 따라보며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8월 11일>

**▷쥐띠**  
46년생: 능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운이다.  
60년생: 화합이 잘 되고 편안한 하루가 될 것이다.  
72년생: 구설수가 따르는 운이니 말을 조심하고 상황을 잘 지켜보아야 하는 운이다.  
84년생: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운.

**▷소띠**  
49년생: 건강에 주의가 필요한 운.  
61년생: 정신적으로 힘든 운이다.  
73년생: 어려움이 있어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 위기를 잘 넘어갈 것이다.  
85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막힘이 따르니 내실을 다지며 때를 기다려라.

**▷호랑이띠**  
50년생: 겉으로는 웃으나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먹고 있어.  
62년생: 나서지 말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좋겠다.  
74년생: 주변의 상황이 어지러워도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아라.  
86년생: 어려움이 따른다면 뒷사람의 조언을 구하라.

**▷토끼띠**  
51년생: 스트레스에 주의해야 하는 운이다.  
63년생: 주변 사람에게 베풀어야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다.  
75년생: 경쟁자로 인해 고민할 일이 생기는 운이다.  
87년생: 타인의 일에 나서지 마라.

**▷용띠**  
5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자가 나타난다.  
64년생: 강하게 나아가면 부러지니 적당한 타협만이 실길이다.  
76년생: 문서를 주고받거나 계약을 서사시키기에 좋은 운이다.  
88년생: 용기만으로 행동하기에는 제약이 많이 따르니 계획을 세워라.

**▷뱀띠**  
53년생: 중요한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이 좋다.  
65년생: 뜻이 맞는 사람을 만나 화합할 수 있는 좋은 운.  
77년생: 고민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함께 상의하고 결정하라.  
89년생: 소화가 계통의 질병에 유의해야 하는 운이니 섭생에 주의하라.

**▷말띠**  
54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따르는 운.  
66년생: 매사 일찍 움직여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78년생: 지나친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능력 발휘되는 좋은 운이다.  
90년생: 정신적으로 맑지 않으나 판단 오류가 생길 수 있는 운이다.

**▷양띠**  
55년생: 다른 사람들과의 불화가 예상되니 주의하라.  
67년생: 뒷사람으로 인해 고민할 일이 생긴다.  
79년생: 컨디션이 좋지 못하고 매사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91년생: 다른 사람들의 화합에도 좋지 못하니 중요한 약속은 다음으로 미뤄라.

**▷원숭이띠**  
56년생: 외부적인 일들이 생각 외로 잘 해결될 수 있는 운.  
68년생: 동기간과 함께 움직이면 이득을 볼 수 있겠다.  
80년생: 정신적으로 힘든 운이니 해답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법.  
92년생: 구설수와 시비수가 따르는 운이니 타인과의 협력은 불가하다.

**▷닭띠**  
57년생: 외출하면 좋은 일이 생기겠다.  
69년생: 건강에 주의가 필요한 운이니 컨디션 조절에 신경써라.  
81년생: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운.  
93년생: 무리한 일은 과감히 포기하라.

**▷개띠**  
46년생: 문서를 얻을 수 있는 운.  
58년생: 좋을 때 그 후의 일을 대비하라.  
70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실수가 따르는 운이다.  
82년생: 자신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이 따르는 운이니 매사에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돼지띠**  
47년생: 다른 사람의 일을 돕거나 참견하는 것도 주의해야 하는 운.  
59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막힘이 따르는 운이다.  
71년생: 상황이 좋지 못할 때에는 뒤로 물러서서 때를 기다려라.  
83년생: 배운 만큼 돌아오니 적극적으로 보충하는 것이 좋은 운이다.